

도마의 의심과 믿음

크리스 식스 목사

요한복음 20:24-31

2023년 4월 9일 부활절 설교

지난 주 예배에서 우리는 부활절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배웠습니다.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그들의 권력 장악에 위협이 되었습니다.
산헤드린은 무고한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에 통제의 환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즉, 그분이 항상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산헤드린이 예수를 죽이는 데 성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절 일요일에 예수님의 부활은 산헤드린이 결코 통제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심과 믿음에 관한 요한복음의 또 다른 구절을 봅니다.
예수님은 부활절 일요일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일주일 후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20:24-31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24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인 토마스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

25 그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속에 넣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 창자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대답하였다.

26 팔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함께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겼습니다. 그러나 전과 같이 갑자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서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가 말했다.

27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대어 내 손을 보아라.

내 옆구리의 상처에 손을 넣으십시오.

더 이상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28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토마스가 소리쳤다.

29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30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된 표적들 외에 다른 많은 표적들도 행하시는 것을 보았다.

31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를 믿으므로 그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함께 이사야 40:8을 읽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저와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은 생명과 진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께 나아옵니다.

예수님, 당신은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배합니다.

성령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토마스에게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이 구절에 대해 생각한 후에 당신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매우 친한 친구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따르는 사람" 또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토마스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은 예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를 따라다녔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숙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37절을 들어보십시오.

36 시몬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지금은 나와 함께 갈 수 없으나 나중에는 나를 따르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37 "주님, 제가 지금은 왜 갈 수 없습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죽을 만큼 충분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1:16을 들어보십시오.

16 "쌍둥이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도 가자.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자."

베드로와 도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성장해야 할 것은 미성숙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와 도마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되고 지속적인 믿음은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때만 올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무신론자였지만 진정한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에 믿음과 신뢰를 둡니다.

젊었을 때 나는 맥주와 여자가 나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돈, 성공 또는 관계에서 평화와 안전을 추구합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의 마음은 어디로 방향잡니까?

사탄은 당신이 예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속삭이는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의심할 때마다 당신은 다른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왜 하느님과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까?

하와가 뱀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눈을 더 믿었습니다.

Peter와 Thomas는 그들의 용기를 믿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실제로 위험에 처할 때까지 말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외에 무엇을 신뢰하든 그것은 당신을 실망시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전에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한 믿음을 잃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베드로가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부활 후 하나님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베드로에게 새로운 믿음을 보내셨습니다.

역사가들은 토마스가 인도에 복음을 전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복음의 사자가 되기 전에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가져야 했습니다.

저와 함께 24절과 2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4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인 토마스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

25 그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속에 넣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 창자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대답하였다.

그 첫 번째 대화는 부활 일요일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했을 때, 그는 여인들과 제자들이 미쳤거나 혼란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주님이자 친구인 생명 없는 몸을 보았습니다.

토머스는 사람들이 땅에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도마는 일주일 전에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본 것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셨습니다.

도마는 왜 그렇게 의심이 많습니까?

도마는 왜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했을 때 믿지 않았을까요?

저는 실제로 토마스의 의심에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이 제자에 대한 믿음의 부족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기 위해 고군분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증거가 있다면 더 많은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기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크고 극적인 기적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2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작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만납니다.

도마의 연약한 믿음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제자들이 귀신들린 소년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24절을 들어보십시오.

20 “그래서 그들은 그 아이를 데려왔다.

그러나 악한 영이 예수를 보자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러져 비틀거리며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21 “이런 일이 일어난 지 얼마나 되었느냐?” 예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22 영이 그를 죽이려고 불 속으로나 물 속으로 자주 던져 넣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할 수 있다 함이 무슨 뜻이나 하시니

”사람이 믿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24 그 아버지가 즉시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요구하시는 전부입니다.
그분은 결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과 구세주로 믿으라고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우십니다.

일요일에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우시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주일에 모이는 습관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주일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26절에서 제자들이 “8일 후에” 다시 모였다고 보고합니다.
그 시간과 문화에서 당신은 당신이 세는 첫날을 포함했습니다.
따라서 “8일 후”는 “1주일 후”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이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연속으로 두 주일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일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유대인의 토요일 안식일이 기독교인을 위한 일요일 주의 날로 대체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20 “두세 사람이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기도모임, 생활모임, 주일예배를 위해 모임 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모든 노래, 우리가 설교하는 모든 설교는 모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대단한 설교!” 그때 나는 내 일을 하지 않았다.
제 목표는 여러분이 “대단한 구원자이시군요!”라고 말하면서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이자 기도입니다.
이제 다시 요한복음 20:26-27을 봅시다.

26 팔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함께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겼습니다. 그러나 전과 같이 갑자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서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가 말했다.

27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대어 내 손을 보아라.

내 옆구리의 상처에 손을 넣으십시오.

더 이상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28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토마스가 소리쳤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그분을 보고 놀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도마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토마스가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예수님은 일주일 전에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요 20:25b).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도마가 한 말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일주일 후에 예수께서 도마의 의심에 직접적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미묘하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아마도 도마는 이것에 대해 기도했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도마의 마음을 들여다보셨고 그의 의심을 보셨을 것입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의심을 제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도마는 28절에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예수님은 그를 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받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선언한 도마를 칭찬하셨습니다.

나는 또한 Thomas가 말하는 매우 개인적인 말을 좋아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요한복음 3:16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에 하나씩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28절에 있는 도마의 말에서 그 개인적인 경험을 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아름답지 않나?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오직 기독교만이 이 망가진 세상에 상처를 가진 신을 제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힌 상처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그의 사랑과 승리의 증거인 상처를 가지고 가십니다.

죄 없는 삶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완전한 제물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와 수치를 그분의 시체와 함께 묻으셨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의 상처투성이 몸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는 우리 구원의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흉터가 있습니다. 일부는 신체적, 일부는 감정적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우리 고통의 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처는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에 대해 서로에게 정직할 때 다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Thomas로부터 받는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을 본 적은 없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를 육체적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믿음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산헤드린의 집회를 소집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그분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를 바랐던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그분이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말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기적을 보았지만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물리적인 증거가 없어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Thomas는 우리의 대표이자 의심의 대사입니다.

도마에게서 우리는 연약한 믿음과 의심과 질문을 가진 우리 자신을 봅니다.

나와 함께 요한복음 20:29-31을 다시 보십시오.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30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된 표적들 외에 다른 많은 표적들도 행하시는 것을 보았다.

31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를 믿으므로 그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존재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압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물리적으로 거기에 있었습니까?

카이로에 직접 가본 적이 없다면 본 사진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피라미드 중 하나 안에 있는 제 사진입니다.

내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좋은.

물리적으로 보거나 만지지 않고도 피라미드가 진짜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29-31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과 다른 제자들이 믿을 만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에 대한 네 가지 다른 복음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19:32-35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제공하신 목격자의 증언의 예입니다.

32 군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의 다리를 꺾고

33 그들이 예수께 와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34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 이 보고서는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목격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그는 너희로 계속 믿게 하려고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금요일에 죽으시고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수십억은 믿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이것은 당신이 받게 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죄인의 구원자이시며 당신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의심이 있습니다.

부활절 일요일에 Thomas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질문과 의심을 가지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일주일 주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 일부는 현재 “Thomas Time”에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질문을 하고 진실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아요!

이 교회는 여러분이 질문하고 답을 구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질문을 환영하시고 진리에 대한 당신의 탐구를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답과 치유와 희망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십니다.

아마도 오늘은 당신이 결정을 내리는 날일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당신은 믿음의 도약에 토마스와 함께 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집착하는 모든 공허한 것들에 대한 믿음을 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으십시오!”

그러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느님이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우리는 몇 분 동안 침묵의 기도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의심에 대해 주님께 아뢰십시오.

당신이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과 구세주로 믿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당신과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다른 것이 있으면 앞이나 뒤로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관대한 구속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질문에 답하시고 우리의 의심을 제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날에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